

예수님의 비유(210804)

■ 제 5 강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(막 4:26-32)

1. 전후 문맥

1.1. 씨 뿌리는 자의 비유(막 4:1-20)

1.1.1. 씨는 하나님의 () (막 4:14)

1.1.2. 마음 상태에 따른 네 가지 밭: (), (), 가시떨기, 좋은 땅

1.2. 등경과 등불의 비유(막 4:21-24)

1.2.1. 등불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

1.2.2.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냄

2.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(막 4:26-29)

2.1. 비유의 내용

2.1.1. 사람이 씨를 뿌림(막 4:26)

2.1.2.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음

2.1.3. 사람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함(막 4:27)

2.1.4. 다만 곡식의 ()에 참여함(막 4:29)

2.3. 비유의 의미

2.3.1. 전후 문맥을 볼 때 씨앗은 하나님의 () = 복음

2.3.2. 말씀 자체에 내재한 ()이 외적으로 발현됨(사 55:11)

2.3.3. 이 일에 있어 사람이 기여하는 바가 없음(고전 3:7)

2.3.4. 다만 사람은 씨를 뿌리고, 인내하여, 추수에 참여

2.4. 비유의 요점

2.4.1. 하나님의 나라는 ()의 선포와 함께 이미 시작

2.4.2. 그 자체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통해 반드시 실현됨(빌 1:6)

2.4.3. 그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사역

2.4.4.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

3. 겨자씨 비유(막 4:30-32)

3.1.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

3.2. 강조점은 씨앗에 있음

3.2.1.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 씨앗이 땅에 심김(1/700 그램)

3.2.2. 모든 풀보다 커짐(3m 이상 자람)

3.2.3. 공중의 새가 그 그늘에 깃들

3.3. 비유의 요점

3.3.1. 성장하는 ()이 아니라, ()과 ()의 대조

3.3.2. 특별히 처음의 미약함이 강조

- A. 하나님의 나라가 웅장할 것은 모두가 예상
 - B. 사람들은 시작도 웅장할 것이라고 기대
 - C.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시작됨
- 3.3.3. 열두 제자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(누룩의 비유[마 13:33])

4. 결론

- 4.1. 지금 이 곳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
- 4.2. 하나님은 그 나라의 확장 혹은 ()을 위해 지금도 일하심
- 4.3.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()할 수 있도록 초대하심
 - 4.3.1. 비록 겨자씨와 같이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.
 - 4.3.2. 씨 뿌리는 것과 인내하고, 추수에 참여하는 일